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 등 13명 구속

3년전 광양 원룸·모텔서 술먹여 못된짓

여중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등 13명이 구속됐다.

광양경찰청은 5일 K(18·당시 중학교 3년)군 등 13명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 2010년 8월초 광양에 사는 피의자 C(22·당시 19세)씨 원룸에서 A(당시 여중생)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군 등 6명은 같은 해 6월초 광양시 중앙동 한 모텔에서 A양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모텔에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던 중 A양과 A양의 여자친구 B양 등 2명을 불러낸 뒤 못된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K군 등은 모텔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자 A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잡은 뒤 번갈아가면서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엔 A양의 여자친구 B양

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에서 성폭행한 K군 등 6명이 이어 나머지 7명은 두 달 뒤 A양을 C씨 원룸으로 불러내 같은 수법으로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고교생이었던 이들은 현재 회사원·고교생·무직자들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당시 충격으로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고 아직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군은 경찰에서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 당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

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파일을 지우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K군 여자 친구인 B양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광양에서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A양의 진술을 토대로 K군 등 피의자 13명을 차례로 불러내 자백을 받아냈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3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자 A양은 물론 부모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양=박정렬기자 pyj4079@

고려대 '몰카 성추행' 피해 여학생 3명 고소장

고려대 남학생이 2년간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피해 여학생 가운데 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성북경찰청은 5일 고려대 휴학생 A씨의 '몰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심한 여학생 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여학생 19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려대로부터 제출받은 A씨의 '몰카 동영상'을 분석해 피해 정도가 높은 여학생 3명을 종로구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했다. 여학생 3명 모두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

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해 여학생 16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학생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꺼려 해바라기 센터와 고려대 모처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불러 범행 사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가 찍은 동영상에는 여학생들과의 신체 접촉 장면은 없으며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며 "가해자의 가장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8863) 김종두



시아머니 요거트에 농약 항소심도 머느리 집행유예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용 부장판사)는 5일 시아머니가 먹는 요거트에 농약을 탄 혐의(준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시아머니(78)가 평소 즐겨 먹는 때먹는 요거트에 농약을 섞어 넣는 등 4차례에 걸쳐 우유나 요거트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택시비 안낸 손님 집은 기사 되레 입건

○경찰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을 추격해 붙잡은 50대 택시기사를 되레 폭행 혐의로 입건해 빈축.

○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장모(56)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S산부인과 인근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 박모(41)씨를 쫓아가 붙잡은 뒤 택시까지 약 3m를 끌고 갔다는 것.

○장씨는 "택시비 1만200원을 안내고 도망 가기에 박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가려는 도중 과격하게 행동한 건 사실이지만 붙잡은 것 밖에 없는데, 폭력 혐의로 입건되니 억울하다"고 항변. /최승렬기자 srchoi@

“15년 동안 품삯 한푼 못받았다”

목포 실종선원 가족들 진정서... 경찰·노동청 조사

40대 선원의 실종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15년 동안 임금을 착취 당하며 마치 ‘노예’처럼 일해왔다”고 주장,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밤 9시50분께 신안군 지도읍 참도선착장 앞 200m 해상에서 9.77급 연안자망어선 S호 선원 현모(49)씨가 실종됐다.

동료 선원(40)은 “저녁을 함께 먹은 뒤 밤 9시30분께 선미 쪽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씨가 사라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원 확인 과정에서 현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 50여분 간 자체적으로 현씨를 찾다

가 이날 밤 11시10분께 목포해경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아직 현씨의 종적은 묘연한 상황이다.

하지만, 길이가 50m에 불과한 배에서 구조 요청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다, 경력 15년의 배테랑인 현씨가 실수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도 적다며 현씨의 가족들은 실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평소 현씨와 원만한 관계였다”는 동료 선원들의 진술과 “3달 전 동료와 현씨가 술값 문제로 다툼 경찰이 출동했다”는 인근 상인의 목격담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아울러 현씨의 아들(29)은 “유류항주점 사장 M씨가 선주와 결탁,

금여기인 한 달 동안 술을 먹고 재워주는 대가로 임금을 가로채는 정황이 인근 상인의 제보와 녹취록 등으로 확인됐다. 15년 이상 노예처럼 일만해온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최근 목포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납 부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원 들간의 불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밝히는 한편, 유류항주점이 여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노동청도 임금 체납과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불 원칙’ 등에 어긋나는 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탄소는행 홍보 캠페인

광주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5일 오전 백운광장 및 푸른길공원 일원에서 남구 그린리더협의회 회원 50여명과 녹색생활실천운동 및 탄소은행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남구청제공>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판결 해달라”

시민대책위, 대법에 촉구 “복구, 대법에 상고 환영”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대법원에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5일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은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익

보다 이마트의 불이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주민의 생활권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바로 잡으려는 복구의 대법원 상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학교 바로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골목상권 붕괴, 교통대란, 학습권 침해 등 우려와 유류재벌의 지역경제 황폐화 등 사회적 현실, 지역민의 삶을 위협한 사법부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형마트·SSM 입점 저지를 위한 광주 복구의회 특별위원회도 참여했다.

한편 광주고법 행정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최근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과 관련, 이마트가 복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대병원, 보훈대상자 고용 거부는 잘못”

광주지법 판결

전남대병원이 보훈청의 보훈 대상자 특별 고용 처분을 거부하고, 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가 끝내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5일 전남대병원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보훈 특별 고용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청의 고용 처분은 적법했다”면서 “오해될 우려가 없었음에도 보훈청의 고용계획서 제출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지난 2011년 4월 5일 보훈 대상자 1명을 선정해 전남대병원

으로 하여금 행정직에 고용하도록(처분)했다.

병원 측은 보훈 특별 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고용해야 하는데도 고용하지 않다가 보훈청으로부터 수차례 이행 재촉을 받아 소송을 냈다.

전남대병원은 보건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④ 등 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